“태고종 외연 확대 추진… 위상 회복하겠다”

특별인터뷰 상진 스님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당선인)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 스님**은… 1991년 4월 철화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2011년 11월 혜초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4년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졸업했고, 2022년 진각종립 위덕대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학생과장을 시작으로 동두천 광덕사 주지, 마산 원각사 주지와, 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 교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 양주 청련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청련사 안정불교대학 강주, 양주불교사암연합회 명예회장, 고려대 불자교육회 지도법사 등을 맡고 있다.

글=신성민 기자, 사진=윤호섭 기자

오는 6월 27일 공식 취임을 앞두고 있는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하루하루가 바쁘다. 부르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곳에는 정치인도 이웃종단 지도자들도 있다. 취임 전임에도 상진 스님이 분주하게 전국을 다니는 이유는 분명하다. 태고종의 외연 확대를 통한 종단 위상 회복을 위해서다.

한때 태고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의 의전서열이 조계종 다음 가는 종단이었지만, 잇달은 내부 갈등으로 인해 그 위상은 이전보다 하락했다. 종단 위상을 이전 수준으로 되찾는 것은 어찌보면 태고종도들의 자존심 회복과도 같다. 그래서 지난 4월 18일 열렸던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상진 스님은 62.1%라는 지지율로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대체로 박빙 승부가 이어졌던 역대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들을 감안하면 상진 스님에게 향한 종도들의 표심은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종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기에 상진 스님의 어깨는 무겁다. 그래서 당선 이후 매일을 시간을 쪼개가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6월 15일 양주 청련사에서 만난 상진 스님은 이날도 사찰 대소사 처리와 찾아오는 손님맞이에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종단적 잠재능력, 태고종이 NO.1!

마주 앉은 자리, 먼저 스님에게 중책을 맞게 되는 심경과 근황을 여쭸다. 상진 스님은 차분하게 답했다.

“2010~2014년 잠시 총무원 소임을 내려놓았던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총무원에서 소임을 맡아 활동해왔습니다. 중책을 맡았지만 아직까지는 담담한 편입니다. 인수인계는 현 원장인 호명 스님께서 종단을 투명하게 잘 이끌어 오셔서 크게 검토할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는 정계나 종단협 회원 종단 지도자 스님들을 만나는 대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태고종은 정계나 오피니언 리더 등에 대한 네트워크가 부족했죠. 종단의 외연 확대는 위상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학생과장을 시작으로 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 교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을 거쳐 총무원장까지 당선된 상진 스님은 태고종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 강점을 태고 보우 국사로 이어지는 한국불교 법맥을 계승하는 종단이며, 전통 유 ·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꼽았다. 또한 전국에 3400여 사찰과 25개 교구, 5대 본사를 보유하고 1만여 종도가 현장에서 전법교화 활동을 하고 있는 종단적 인프라가 태고종의 가장 큰 잠재능력임을 스님은 강조했다.

반면, 약점으로는 종단적 구심점 미흡을 꼽았다. 현재 태고종에는 종단적 정책 사업들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진행하기 위한 재원이나 인력 구성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게 상진 스님의 지적이다. 상진 스님은 “강점과 약점을 구분해 말하기는 했지만, 나눌 게 없다. 일불제자로서 종도들이 함께 강점은 강점대로 키우고 약점은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6대 공약, 반드시 실행하겠다”

상진 스님은 선거 당시 공약으로 △문화사업단 설치 및 운영 △지방분권의 확립 △교육사업 확대 △승려복지 현실화 △종단 운영의 자립화 △징계절차 3심화 부활 등 6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상진 스님 가장 먼저 시행할 종책으로 꼽은 것은 승려복지 제도 시행이다. 승가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수행으로 시작된 승려생활이 마지막까지도 수행으로 회향될 수 있도록 승려복지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외 활동 통한 종단 네트워크 구축 중
“태고 보우 법통 계승은 태고종 강점
구심점 미흡은 약점… 보완해나갈 것”

대산복지재단 정상화… 승려복지 추진
태고종 유 · 무형유산 발굴 지원 확대
6대 핵심사업 제시… “발전 기틀 마련”

“公心으로 운영… 종도들도 함께 하길”

“운산 스님이 계실 때 설립한 대산복지재단이 지금까지 여러 부침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이 대산복지재단을 정상화해서 승려복지 시스템을 구축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재단을 바로 세우고, 향후 승려 전문 요양병원, 요양원 등을 건립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연계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제1번 공약이었던 문화사업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종단 산하 불교문화문예원을 통해 유 · 무형문화유산을 발굴 ·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조계종에 불교문화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명칭의 기구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문화예술원 산하에 조직을 구성해 각 교구종무원 내 유 · 무형문화유산 현황을 파악하고 가치를 발굴해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하려 합니다. 당장 선암사 같은 경우에도 조사할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관련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진 스님은 불교의례의 복원과 전승이 태고종이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태고종은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봉원사 ‘영산재’를 비롯해 창원 백운사 ‘아랫녘 수륙재’(국가무형문화재), 양주 청련사 예수시왕생칠재(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6호), 광주 법륜사 영산재(광주 무형문화재 제23호)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지방교구별로 영산재, 수륙재 등 무형유산 공개행사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총무원과 연계해 전국적인 불교문화축제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996년부터 팔관회를 복원해 시연하려고 했습니다. 종단적 공의와 역량이 모아질 수 있다면 팔관회 복원도 추진하고 싶습니다. 특히 태고종에는 의식을 담당하는 어장들이 많은 만큼, 기회가 된다면 팔관회의 복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교구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를 위해 상진 스님은 총무원장 직속으로 ‘종단 법무지원실(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다. 종단 사찰 관련 각종 사법 · 행정적 애로사항을 종단 자문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과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인허가, 사찰 혹은 외부와의 쟁송 등이 발생했을 때 종도들이 안심하고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종단 내 행정지원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각 교구를 방문해 종도들과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총무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6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종단 발전의 기틀을 놓겠습니다.”

오로지 公心으로…

상진 스님은 종단 운영 기조로 ‘공심(公心)’을 강조했다. “공심으로 사심이 없이 총무원을 운영하겠다”는 게 스님의 원력이기도 하다.

“지금 종단에는 공심을 가진 종도들이 필요합니다. 저부터 오로지 공심으로 살아갈 겁니다. 종도들도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내가 잘하면 종단이 잘 된다’는 마음으로 전법포교하고 수행 정진했으면 합니다. 제가 회향할 때에는 태고종이 공심으로 운영되는 종단이 되길 바랍니다. 더 큰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공심으로 운영되는 종단의 토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인터뷰 말미, 상진 스님은 ‘남의 흉을 보거나 질책하지 말고, 도리어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기자에게 당부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흉을 보면 닮기 마련입니다.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을 닮아야지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이는 속인에게도, 출가인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남의 흉보다는 장점을 보고 포용하는 것, 그게 화합의 길일 것이다. 오늘도 상진 스님은 공심으로 화합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암 종헌대종사의
역사적 위상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세미나

일시
불기 2567년(2023) 6월 29일(목) 오후 1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조계사 내) 국제회의장

주제
만암 종헌대종사의 생애와 역사적 위상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전화 061-392-7502
www.baekyangsa.com



개회
-. 인사말씀(무공스님, 백양사 주지)
-. 치사(진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제1부 주제 발표 : 만암의 생애와 사상
좌장 : 미산스님(상도선원 회주)
-. 제1주제 발표 : 금강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만암 대종사의 수증과 불교사상」
토론 : 만당스님(불갑사 주지)
-. 제2주제 발표 : 김상영(前 중앙승가대 교수)
「만암 종헌의 생애와 활동-1928년 이후의 활동을 중심으로」
토론 : 한상길(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제2부 주제 발표 : 만암의 불교정화와 교육활동
-. 제3주제 발표 : 김광식(前 동국대 특임교수)
「만암 불교정화의 재인식」
토론 : 이재수(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 제4주제 발표 : 황인규(동국대 교수)
「만암의 교육활동과 의의」
토론 : 김덕진(광주교육대 교수)
-. 제5주제 발표 : 이재형(법보신문 편집국장)
「만암대종사의 행장과 관계된 몇 가지 검토」
토론 : 이성수(불교신문 기자)